

멕시코-미국 양국 관계에 관한 소고: Mexamerica를 중심으로*

임상래**

I. 들어가는 말: 멕시코와 미국의 특수한 관계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는 35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0%을 넘는다. 이제 라틴계는 흑인을 제치고 미국 내 최대 소수인종이 되었다. 이 히스패닉 인구의 절반이 넘는 58%가 멕시코계이다. 멕시코와 미국 양국 국경을 따라 총 2400만 명의 거대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양국 국경을 매일 100만 명의 사람이 왕래하며 1만 명 이상의 멕시코 학생이 미국에 유학중이다. 또 약 1억 멕시코 인구의 2/3정도가 미국에 친척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가늠하기에 충분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양국 관계 역시 간단하고 쉽지 않다. 이웃한 두나라는 필연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며 그 관계는 복잡하고 다중적인 과정을 통해 정립(定立)된다. 따라서 멕시코와 미국 양국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지정학적 숙명성’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 위치, 지형 등은 국가 간 또는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입장 또는 권력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리요소들이다. 특히 ‘어디에 있느냐’ 하는 위치(location)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라틴아메리카가 유럽보다 미국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사

* 이 논문은 2001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부교수

실은 미국과의 관계(적대 또는 협조)를 더 빈번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또 유럽과 멀다는 사실은 중남미의 독립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멕시코와 카리브 지역에 대해 미국이 더 빈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Latin America A Political Dictionary: 7)

이처럼 ‘가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압도적인 조건이다. 지리적 인접은 서로의 삶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멕시코의 경우 북쪽의 이웃 미국은 멕시코 국가와 멕시코인들의 만사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멕시코-미국 관계는 지정학적 숙명성에 기초한 특수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와 미국은 지리적으로만 가까운 것이 아니다. 미국은 멕시코 독립의 든든한 지지자였고 멕시코 역시 자본주의 체제의 최고 판관임을 자임하는 미국의 충실향한 동맹자였다. 멕시코 주권의 상징이자 멕시코 혁명의 실질적인 완성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산업 국유화 조치가 시행되었을 때 다른 서구 나라보다도 미국은 멕시코에 우호적이었다. 2차대전에서도 멕시코와 미국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¹⁾. 1994년에는 멕시코와 미국이 함께 하는 자유무역협력체가 출범하였고 1995년 외환 위기시 클린턴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덕분에 멕시코는 국가부도를 모면할 수 있었다. 최근 9.11 테러에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지지한 나라도 멕시코였다.

그러나 멕시코와 미국은 먼 사이이기도 하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와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 차이의 경제를 가진 나라들이다. 멕시코는 미국과 만나면 한없이 작아진다. 멕시코의 총생산은 펜실베니아 주 예산 정도로 미국의 그것의 4.12%에 불과하다. 멕시코의 일인당 소득

1) 멕시코가 2차대전에서 미국에 협력하고 대신 경제적 대가를 받았고 그 증거는 40-50년대 멕시코의 높은 경제성장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orres, 1979: 2장; Medina, 1994: 4장을 참조.

은 5.766 달러이며 이것은 미국인의 1/5에도 못 미친다. 미국인은 평균 15.5년의 교육을 받지만 멕시코인은 절반정도인 7.7년 동안 학교에 다닌다. 멕시코인들과 비교할 때 미국인들은 컴퓨터는 8 배, TV는 3배, 휴대 전화기는 8배 더 많이 가지고 있다.(Nexos: 51, 54) 양국의 역사는 대립과 충돌의 단면을 보이기도 한다. 텍사스의 독립과 미멕전쟁이 그러했고 멕시코 혁명 때 2 차례에 걸친 미국의 군사적 개입도 그러했다. 쿠바혁명에서, 73년 칠레에서, 80년대 중미내전에서 그리고 90년대 그라나다와 파나마 침공에서 멕시코는 미국과 대립에 가까운 이견을 보였다. 카터 대통령이 고백한 것처럼 “미국에게 멕시코와의 관계가 힘든 것이라면 멕시코에게 미국과의 관계는 너무도 고통스런 것”이었다.(Laster, 1994: 21) 이처럼 멕시코와 미국은 멀리하기에는 너무도 가까운 관계이고 그래서 가깝고도 먼 관계 그리고 대립과 협력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진 그런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멕시코(인)와 미국(인)이 공존하는 공간인 멕스아메리카의 개념과 실체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멕스아메리카와 그곳에 살고 있는 멕시코적 미국인 또는 미국화된 멕시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치카노들에 대한 이해는 멕시코와 미국간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연결 고리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멕스아메리카와 치카노가 멕시코와 미국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으며 또 양국의 미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II. 멕스아메리카: 멕시코와 미국 사이

각별한 관계의 멕시코와 미국은 그에 걸 맞는 현안들을 가지고 있다. 양국의 현안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예를 들어, 9.11 테러로 인해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와 국제 관계의 재편 가능

성이 양국 간 주요 현안이 되는 식이다.

그러나 양국은 역사적이고 고전적인 몇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통상과 교역이다. 양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미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저렴하고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멕시코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멕시코 경제에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반면 멕시코는 거대시장 미국에 대한 인접성과 수월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대미 경제종속을 경계한다.²⁾ 멕미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은 에너지 문제이다. 현재 캐나다를 포함하는 3국간에 멕시코 천연 자원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사용에 대한 공동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멕시코 석유산업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석유산업에 대한 멕시코 내의 여론은 멕시코 주권의 상징이라는 자원민족주의적 입장과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효율화시킴으로서 석유가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강조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양국관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의제는 마약문제이다. 양국은 마약의 생산, 정제,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얼마간의 결실을 보고 있다. 이외의 공동 관심사는 콜롬비아, 쿠바, 베네수엘라 문제, 교토 기후변화협약, 더블린 반인종차별 회의, 요하네스버그 개최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상회담 등이며 이에 대해서도 양국은 진밀하게 협의하고 있다.(Castañeda: 69)

멕미관계에서 가장 고전적인 현안은 뛰니뛰니 해도 Migration(인구이동)이다. 특히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멕시코인들 문제는 역사적으로 미멕전쟁 이후 항시적으로 제기된 우선적 문제였으나 양국 간 공식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었다. 불법이민자 문제는 국경문제와 중첩된 긴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동인에 대해서도 입장과 시각이 대립되고 있어 그리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 양국 관계의 개관에 대해서는 김달용, 1994 참조.

이처럼 멕시코와 미국은 두 나라이긴 하지만 공통분모를 가진 하나의 현실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양국이 원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결국 맺어지게 되는 그런 유별난 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각별한 관계에 있는 멕시코와 미국이 만나는 곳이 멕스아메리카 (MexAmerica)이다. 멕스아메리카는 양국의 대립과 충돌이 지속되는 현장인 동시에 조화, 협력, 수용의 가치가 완성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멕스아메리카는 특별한 관계의 가장 적극적인 산물에 다름 아닌 것이다.

지도에 나와 있지 않다고 멕스아메리카가 ‘엘도라도’와 같은 추상은 아니다. 말 그대로 멕스아메리카는 ‘멕시코적인 아메리카’이다. 멕스아메리카는 지리적으로 멕시코 국경 북쪽 미국영토에 위치한 텍사스, 뉴멕시코, 콜로라도,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다. 이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다.(MEXAMERICA HERITAGE INSTITUTE) Laster(1994: 18)에 의하면 L. A.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멕시코 인구를 가진 멕시코 제 2의 도시이다. 멕시코시티가 멕시코 중남부를 관장하는 수도라면 로스엔젤로스는 미국 남서부와 멕시코 북부 지역을 관장하는 중심지이다. 따라서 L. A.는 멕스아메리카의 수도에 해당하며 카우보이 장화는 그 상징이며 경제 봄은 멕스아메리카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멕스아메리카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은 양국에 걸친 대안(對眼) 도시³⁾들이다. 가장 동쪽에 있는 San Diego-Tijuana는 인구 400만으로 국경 지역 중 가장 왕래가 많은 곳이다. 90년대 인구성장율은 약 26%였다. 다음으론 Calexico-Mexicali가 있다. 메히칼리는 마킬라도라 산업 덕분에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1990-2000년 사이 인구는 총 73% 증가하여 멕스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를 보인 곳이다. Douglas-Aqua Prieta 지역은 밀입국이 가장 많은 곳이다. 90년대 인구 성장률은 67%이었다. 멕스아메리카의 중앙부에 위치한 El Paso-Cd.

3) 국경을 맞대고 있는 ‘twin city’를 우리말로 옮기면 ‘쌍둥이 도시’가 되나 서로 마주보는 도시란 의미의 대안도시가 적절한 표현이다.

Juárez는 멕스아메리카에서 두 번째 많은 인구인 200만의 지역이다. 이를 그대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멕시코와 미국간 주요 통과(paso) 지점이었다. Laredo–Nuevo Laredo는 국경 중 상업물동량이 가장 많은 곳이며 90년대 43%의 인구증가를 기록했다. McAllen–Reynosa는 90년에서 2000년 10년 사이에 38%의 인구증가가 있었고 MaAllen은 미국 도시 중 가장 성장이 빠른 도시이다.(Nexos: 59)

황량한 사막만이 있었던 이 지역은 오늘날 2.400만 명의 거대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멕스아메리카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은 미국과 멕시코 양국 모두에서 평균 인구-경제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곳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를 가늠하고 양국민간의 소통을 관찰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멕스아메리카의 형성과 발전: 국경의 역사에서 이민의 역사를

1.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멕스아메리카의 현실을 조망하기 위해선 지리로서의 국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면 오늘날 멕스아메리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멕시코-미국 국경사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멕스아메리카의 과거와 오늘에 대한 이해는 국경의 역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양국이 맞대고 있는 3.000km 의 경계선은 단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만이 아니라 앵글로색슨 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구분이기도 한다. 또 이 국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경제적 격차가 큰 두 나라가 만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멕시코-미국 국경은 양국관계만큼이나 특별한 점이 있다.

국경너머 지역에는 새로운(new) 멕시코인과 오래된(old) 멕시코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 기회의 땅 아메리카로 이민한 멕시코인들도 있고 단지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어온 멕시코인들도 있다. 이들은 ‘새로운’ 멕시코인들이다. 이들 이전의 ‘오래된’ 멕시코인들은 국경을 통과한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전부터 살고 있는 멕시코인들이다. 이들 모두에게 이곳은 국경이 아니라 하나의 상처이다.

유럽인이 처음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국경지역은 남미에 비해 수적으로 원주민이 많지 않았고 문화수준도 낮아 지금의 애리조나와 뉴멕시코주의 푸에블로 인디언을 제외하곤 거의 모두가 반수렵-반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자연히 스페인의 식민활동은 귀금속과 노동력이 풍부한 중남미에 집중되었고 대신 신대륙에 늦게 진출한 불란서, 영국, 네덜란드 등이 이 지역 경영에 주력하게 되었다. 영국은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면서부터 신대륙에 활발하게 진출하기 시작했다. 1600년대에 여러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1606년에는 지금의 베지니아주에 최초의 식민도시 제임스 타운을 건설하였다.(유종선, 1995: 34)

1800년경 미국인들이 텍사스로 이주했을 때 이 지역에는 이미 7만5천 명의 누에바 에스파냐(신 스페인, 즉 멕시코)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19세기 초 영국과 불란서에서 직물산업이 발전하여 미국의 면화 생산과 공급이 증가하면서 텍사스 동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식민 기간과 독립한 후 얼마간 멕시코 정부는 미국인들의 이동과 정착을 식민 차원에서 환영하였으나 미국이 동부 텍사스 지역의 매도를 요구하자 1830년 미국인의 이민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이 점점 아메리카화되었고 급기야 미국인들이 텍사스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1836년 산타 안나 군은 알라모 요새를 점령하였다. 텍사스군의 반격으로 산타 안나 군은 퇴각하고 텍사스공화국이 선포되었고 1845년 미 의회는 텍사스의 공식합병을 승인하였다. 멕시코에서는 텍사스를 회복하자는 여론이 일어났고 미국이 리오 그란데 지역까지 진출하자 양측간의 국경분쟁은 더욱 빈번해졌고 급기야 미국과 멕시코간의 전쟁이 1846년

발발하였다. 이 전쟁에서 멕시코는 패하여 1848년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일부를 미국에 이양하는 과달루페-이달고 조약에 서명하고 전쟁은 종전되었다.(김달용, 1994: 10, 11) 결국 국경의 역사는 미국인들의 이주에서 시작되고 미멕전쟁으로 그 발전 방향이 결정된 셈이었다.

멕시코의 패배로 이곳에 살던 멕시코인들은 멕시코로 귀국하던지 아니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미국이 된 멕시코에 그대로 머물었고 이들이 바로 *mexicoamericanos*의 선조가 되었다. 결국 이들은 이민을 통해 미국인이 된 것이 아니라 정복으로 미국인이 된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We never crossed a border. The border crossed us.”(Nova, 1988: 52)라고 얘기한다. 처음에 이들은 이 지역의 다수였고 실질적인 주인이었다. 그러나 철도가 부설되고, 앵글로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다수의 지위를 잃게 되었고 오히려 차별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미멕전쟁의 결과로 이 지역은 멕시코의 영토에서 미국의 국경지역이 되었다. 동시에 그곳은 국경이 아니라 경계선이 되었다. 전쟁 이전 이 지역은 미국과 멕시코간의 국경선이었지만 미국이 승리하여 멕시코인들이 미국에 남아 생활하게 됨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미국인지 멕시코인지 구분하기 힘든 곳이 되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단절과 분리의 국경선이 아니라 단지 두 나라간에 존재하는 나중에 멕스아메리카라고 부를 경계지역이 되었다.

2. Bracero 프로그램

지리와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해 왔다. 멕스아메리카의 원주민과 이주민들 그리고 치카노(멕시코계 미국인)에 대한 소사는 그곳을 이해하는 출발점인 것이다.

멕시코건 미국이건 아메리카는 이민의 땅이다. 스페인 사람도 영국 사

람도 모두 이민자였고 원주민이라는 인디오(또는 인디안) 역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서 아직도 미국은 지구상에서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받아 들이는 나라이다. 당연히 멕스아메리카에 대한 이해 역시 이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미국(으로의)이민사는 1776년 이전은 유럽 국가의 해외 영토 확대와 정복에 따른 식민(植民)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후부터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 1800년대 ‘젊은’ 미국은 ‘go west, young men’을 외치면서 부흥과 발전의 시대를 맞고 있었다. 전진과 발전은 인구증가를 동반하여 인구는 1800년 530만 명에서 반세기만에 2,300만 명으로 늘었고, 특히 40-50년대에는 유럽이민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은 남부 농장보다 서부에서 꿈을 실현코자 했고 이들에게 서부 개척은 일종의 신의 ‘명백한 운명(계시)(Manifest Destiny)⁴⁾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 서부 개척에는 남부확장의 의도도 숨어있었다. 결국 멕시코와의 영토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서 이 신의 계시는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이 기간 미국 이민자들은 비교적 동질적이었다. 1820-60년 사이 이민자 500만 명 중 90%가 영국, 아일랜드, 독일 출신이었다. 1880-1930년 ‘대이민’ 기간 중 3,000만 명의 동유럽과 중부유럽인이 미국으로 건너 왔다. 그러나 인종문제와 인구-식량문제 등을 이유로 1924년 미국은 국가별 이민할당 제한을 실시하면서 이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한편 미멕전쟁 이후 멕시코인의 대규모 미국이민은 정치-경제적 변화에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멕시코인의 미국 이민은 1880년대 철도건설이 확대되어 이동이 수월해지면서 시작되어 1910년 멕시코 혁명과 1920년 대 말 ‘카톨릭교도의 반란’ 시기에 많은 멕시코 농민들이 미국 남서부로

4) 1845년 여름 한 신문에 “아메리카대륙에 확대해야 할 우리의 명백한 운명은 해마다 증가하는 수백만 인구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신(神)이 배풀어주신 것이다 (our manifest destiny overspread the continent allotted by providence for the free development of our multiplying millions)”란 글이 기고되었다. 이것은 미국의 대외 확장의도의 신호탄이며 당시 미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한 말이기도 했다.(Nova, 1988: 72)

이주하였다.(The Cambridge Encyclopedia: 148) 그러나 세계대공황 시기인 1929~34년 사이에 40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미국에서 강제 출국되기도 했다.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멕시코인의 미국이주는 2차 대전 이후 'Bracero Program'⁵⁾에 의해서였다. 2차 대전으로 미국 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1942년 4월 미이민귀화국(INS)은 농장주들의 요구(압력)에 따라 멕시코 노동력 수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멕시코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였다. 협상 초기 멕시코 정부는 경제가 나빠지면 다시 멕시코 노동자들을 송환 시킬 것이라는 염려와 멕시코인에 대한 미국인의 차별과 멕시코에서도 근대화과정에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합국의 일원으로 미국의 요청을 마냥 거부할 수도 없었고 또 멕시코 노동자들이 돌아오면 자국 농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멕시코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등으로 42년 7월 23일 일종의 일시농업이민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세로 프로그램을 체결하였다. 여기에는 차별대우금지와 적절한 노동조건과 미국인과 동일한 임금 보장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⁶⁾

5) bracero란 brazo(팔, 즉 노동)에서 파생된 말로 어원적으로는 '일급 막노동꾼'을 의미하나 멕시코에서 '일시 이주 노동자'를 지칭한다

6)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Verea, 1982: 24):

- 멕시코 노동자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주는 것이지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 미국군에 징집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는 미국정부이다.
- 미국 내에서 멕시코 노동자들은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왕복 교통 경비 지급을 보증한다.
- 계약은 고용주-노동자간 서면 계약에 기초해 이루어진다.
- 멕시코 노동자의 노동은 농업에 한정된다.
- 멕시코 노동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쇼핑할 수 있다.
- 숙소와 위생설비는 적절해야 한다.
- 급료의 10%를 공제하여 고용주가 멕시코 귀국시 돌려준다.
- 멕시코 노동자는 최소한 계약기간의 3/4 이상 노동해야 한다.
- 급료는 노동 지역의 일반적 수준이어야 하며 시간당 최소 30 센트 이하이어서는 안 된다.

처음엔 멕시코시티에만 노동자 모집과 계약을 위한 센터가 개소되었지만 지원자가 많아 44년에는 Guadalajara 와 Irapuato 에도 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경 지역엔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북부 지역보다는 중부의 농촌 실업자들을 흡수하고 국경지역의 면화농업 노동력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Verea, 1982: 24)

브라세로 프로그램으로 합법적인 이민의 길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원한다고 모두가 미국에서 일할 수는 없었다. 불법이민은 줄어들지 않았고 42-47년 동안 매년 수만 명이 불법노동자로 체포되었고 총 18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강제 송환되었다.(Enciclopedia(vol. 5): 2574)

1946년 만료된 이 프로그램으로 우선 양국 간 이해와 우호가 증진되었고, 귀국한 노동자들이 멕시코 농업 발전에 기여했고, 또 이들의 본국 송금은 멕시코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외국 문화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멕시코 사회에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2차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1948년부터 1951년까지였다. 이번엔 노동자가 직접 농장주와 계약을 맺었고 노동자 모집과 왕복 교통 경비·여비 지급도 미국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나 멕시코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행위 조사·해결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멕시코 영사와 미국 노동부 관계자의 노동 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검열만이 합의되었다. 이번에도 멕시코 정부는 국경지역에 모집 사무소 설립을 허가하지 않았다.(Verea, 1982: 27)

협정의 이행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El Paso Incidente' 는 좋은 예이다. 1948년 10월 텍사스 농장주들은 면화수확 100 파운드 당 2.5 달러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정했고 미국 정부도 이를 인정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최저 3 달러를 주장하면서 미국에 맞섰다. 농장주들은 수확기를 놓쳐 농사를 망칠 수 있다고 정부를 압박하였고 결국 미국 정부는 El Paso 부근 국경을 일시적으로 개방하여 멕시코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이에 맞서 멕시코 정부는 텍사스 국경을 폐쇄하였다. 이후 미국 정부는

위법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문제는 해결되었다.(Nova, 1988: 105) 그러나 이것은 면화 수확이 모두 끝낸 후였다.

49년 8월 양국은 Wetback(불법입국자)에 대한 'Drying out'(건조) 정책에 합의하였다. 주 내용은 8월1일 이전에 온 멕시코 불법 노동자들에게 ID카드를 줘서 멕시코로 돌려보내고 다시 이들을 받아들여서 합법화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로 인해 약 8만7천명의 멕시코 인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미국은 그만큼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Nova, 1988: 104; Vereea, 1982: 28)

50년 미국 기업(즉 농장주)은 국경지역 모집센터 설치를 요구했고 미국 농업노동자 노조는 브라세로 프로그램의 폐지를 주장했다. 멕시코 정부도 계약이 일방적이고, 국경지역의 숙련노동력 유출이 심하고, 노동자 가족들이 국경으로 이사하여 본국 송금이 미국 내에서 소비됨에 따라 프로그램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 브라세로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그리 매력적이지 못했다(Verea, 1982: 29)

그러나 1951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양국 정부는 8월 새로운 브라세로 협정에 합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협정은 64년까지 유효하며, 농업에만 고용되며, 차별은 금지되며, 미국 노동청이 임금 결정권 가지며, 노동 계약기간의 3/4는 최소한 준수되어야 하며, 왕복 교통비를 지급하며, 멕시코 노동자를 구사대로 고용할 수 없으며, 미국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54년 5월 미국 농장주들의 요구와 압력으로 “멕시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지역수준에 준하는)을 결정하는 권한은 미국 노동청이 갖고 멕시코 정부는 재고를 요청할 권리を持つ다; 양국 간 이견이 있을 때도 노동자 모집은 중단되지 않는다; 멕시코 노동자들은 고용과 실업보험의 권리를 갖는다; (기피 고용주) 블랙리스트 작성은 멕시코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양국이 공동으로 한다; 고용주는 전액이 아니라 제공된 노동에 비례하여 교통비와 여비를 지급 한다; 모집센터는 두랑고, 이라푸아토, 과달라하라 외에 몬테레이와 치와와에도 둔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Verea, 1982: 30, 31) 개정된 내

용들은 오히려 멕시코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53년 한국전이 종료되면서부터 미국내 실업과 고용문제를 멕시코 불법노동자와 연관지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일부 노동자들의 멕시코 송환이 이어졌다. 63년 미국 의회에서 브라세로 프로그램이 규정된 미공법 78호의 연장이 부결됨에 따라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⁷⁾. 1948-1964년 동안 450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절정기였던 56년에는 약 44만 명이 미국에 입국하였다.(Nova, 1988: 97)

3. 불법이민

브라세로 프로그램 종료는 멕시코인들에게 미국에서의 노동 기회의 단절을 의미하였다.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는 경로가 차단되자 불법 이민과 입국 서류 위변조 범죄가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의 부정부패도 늘어났다. 또 미국 내에서는 불법이민자라는 약점 때문에 멕시코 노동자에 대한 차취와 차별이 가중되었다.

브라세로 정책의 중단으로 인한 고용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서 1965년 국경산업화정책이 개시되었는데 이 정책의 결과로서 마킬라도라(Maquiladora) 산업이 출현하였다. 국경산업화정책은 전통적으로 낙후지역이었던 국경지대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는데 따라서 마킬라도라는 일종의 수출자유지역의 보세 가공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남섭, 2000: 24-25; 김명혜, 1988: 92-93) 마킬라 산업이 확대되어 고용이 증가되었다고 불법이민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마킬라 산업의 노동조건은 열악했고 미국내 일자리 수요

7) 미공법 78호가 종료된 것은 우선 미국 농업노동자의 노조화 운동이 활성화된 결과였다. 특히 AFL-CIO(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또 농산물 수확과정이 기계화되어 노동력 수요가 줄어든 것과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변화도 프로그램 종결의 배경이었다.

는 여전하였기에 멕시코인들의 불법월경은 중단되지 않았다.

미국 내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또는 coyotes(코요테), 또는 polleros(닭장수)라고 하는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자들이며 다른 한 유형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체류자격이나 기간을 어긴 불법체류자로 나눌 수 있다. 불법입국자는 mojados(물에 젖은 사람들) 또는 alambristas(철조망을 건넌 사람들)라고 부르는데 전자는 동부국경인 리오 그란데 강을 통해 입국한 이민자를 말하며 후자는 반사막지대인 서부지역을 통해 입국한 멕시코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의 추동력은 농촌의 높은 인구증가율, 고용을 위한 치열한 경쟁, 기계화로 인한 농촌 일자리 감소, 저생산성의 소토지, 소득분배왜곡, 저임금 등의 push factor와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저임금노동력, 더 많은 고용기회, 외국화에 대한 높은 환율, 제공되는 좋은 교육기회와 환경 등 full factor로 이해된다.(The Cambridge Encyclopedia: 150) 멕시코 불법 이민의 경우, 멕시코 정부가 불법이민을 ‘불법성’이 아닌 인간의 보편적인 ‘노동권’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 것처럼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동인은 멕시코의 경제침체와 부의 불균형 분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더 윤택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이민을 실행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이민은 미국의 노동법이나 이민법을 어긴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인권이라는 절대 가치에 우선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강석영, 1999: 61) 이는 처벌을 강화하고 경비를 보강하는 법과 제도만으로 불법이민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과 상통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가정의 가치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짊주린 자식을 두고 국경너머 빵을 바라만 보고 있을 부모는 없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이민자와 고향사람들간의 견고한 네트워크도 멕시코 이민문제를 이해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조사 결과 동향 출신 이민자

공동체의 미국내 응집력과 새로운 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후원 등과 같은 이민자 네트워크가 이민 규모를 가능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이 밝혀졌다.(Merino, 2002: 2, 3)

2002년 현재 미국에는 약 300만 명 정도의 멕시코계 불법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1년 부시 행정부는 2004년 대선에서 멕시코계 유권자를 의식하여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나 9.11 테러의 여파와 반이민단체들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멕시코 이민사를 통해 볼 때 미국정부는 불법이민자에 대해 이중적이고 상반된 행동을 보여왔다.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내 노동력이 부족할 때 불법이민은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 Drying out 정책도 그러했고 1986년 미국 정부가 미국 내 불법이민자 합법화와 불법노동자 고용주 쳐벌을 골자로 한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를 제정한 것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장점과 이득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위기시에는 일방적으로 이민을 제한하고 국경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1974년 미국은 멕시코 불법 이민자 수십만 명을 귀국시킨 바 있다.(강석영, 1999: 59, 61) 즉 히스 패닉 불법이민자들은 미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공헌하였지만 동시에 실업과 인플레 등 경제위기시 모종의 희생양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IV. 멕스아메리카의 오늘

1. 멕시코인, 미국인 그리고 치카노

멕스아메리카에 대한 이해는 그곳에 살고 있는 치카노⁸⁾가 미국과 멕

8) 치카노(chicanos)란 멕시코의 문화, 전통, 언어를 교수하는 멕시코계 미국시민을

시코에서 과연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아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우선 치카노들이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카노를 포함하는 히스페닉⁹⁾은 2000년 현재 흑인으로 정체성을 표시한 사람(3,470만 명)보다 많은 3,530만 명으로 흑인을 제치고 이제 미국 내 최대 소수인종이 되었다. 인구통계에 의하면 1970년 히스페닉은 미국 전체인구의 5%, 90년 9%, 2000년 11%, 2030년 18%, 2050년 2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amos, 2000: 217) L. A. 인구의 47%, 캔자스의 Dodge City의 43%, Dallas의 36%, 뉴욕은 27%, 시카고는 26%가 히스페닉이다. 그런데 그 히스페닉의 절반이 넘는 58%가 멕시코계, 즉 치카노들이다. 미국 내 히스페닉 인구의 증가가 둔화될 것이라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이들은 대 가족을 선호하고 중남미로부터의 이민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국의 주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연히 그들의 언어인 스페인어 역시 중요한 언어로 취급된다. 한 조사(Nexos: 59)에 의하면 미국인의 78%가 자녀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칠 거라고 응답한 바 있다.

수적 증가는 정치적 관심과 참여로 이어졌다. 1994년 아래 멕시코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민자에 우호적인 후보(일반적으로 민주당)에게 투표하는 성향을 보여왔다. 덕분에 1998년 주지사선거에서 친이민자정책을 들고 나온 민주당의 Gray Davis가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고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알 고어는 캘리포니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의미한다. 스페인어로 *mexicano-americanos*, *mexico-americanos*, 영어로는 *mexican-American*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치카노의 어원에 대해서는 'mexicanos'가 'mechicanos'로 발음되어 치카노가 되었다는 설 등 이론이 많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창민, 2002: 65-66. 참조.

9) 히스페닉(Hispanic) 이란 원래 *España*(스페인)에서 유래된 말이나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Spanish(speaking)* Latin American의 기원을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이 용어는 식민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라티노(latino)라는 말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히스페닉이 좀 더 일반적이다.

이러한 투표 행태 때문에 부시는 멕시코 이민이 미국의 노동력수요에서 기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불법이민은 양국 간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Nexos: 36)

정치적 중요성의 확대와 함께 치카노를 포함하는 히스페닉의 경제적 입장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 내 히스페닉 인구의 구매력은 1990년 2.100 억 달러에서 십 년 사이에 4.000 억 달러로 배 가량 증가했다. L. A.에서 가장 청취자가 많은 방송은 스페인어인 라디오 방송이고 이런 상황은 마이애미에서도 비슷하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기업의 스페인어 광고 지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T&T는 1997년 14 억 달러의 스페인어 광고비를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 이었다. 이 숫자는 ‘english only’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미국 내 상황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증가율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미국에서 베이글 빵이나 케첩보다 토르티야(tortilla)와 멕시코식 핫소스인 salsa picante 가 더 많이 팔린다. 이제 히스페닉은 미국 슈퍼마켓의 진열대를 변화시키고 있다.(Ramos, 2000: 211)

점진적으로 미국 사회 내에서 치카노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강화되고 있는 이면에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멕시코계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사회의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반응과 행동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불법 이민 노동자들은 주로 미국 남서부의 농장에서 일을 하지만 이외에도 대도시의 건설현장, 식당, 자동차수리 등에서 육체노동을 하고 있으며 가정부나 정원사 등 가사노동에도 많이 종사한다. 불법노동자를 포함하여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한 증오와 반대는 경제 침체기에 더욱 두드러진다. 그들의 ‘고전적’ 주장에 따르면: 이민은 초파인구를 야기한다;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뺏는다; 이민자들은 임금을 내린다; 이민자들은 정부지원을 이용한다; 이민자들은 미국사회에 제대로 통화하지 않는다.(Ramos, 2000: 241) 그러나 이민자들은 오히려 미국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자신들의 월급을 소비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또 다른 고용을 창출시킨다. 날로 노령화되어 가는 미국 사회의 인구구성에 젊은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민자들이다. 이민자들이 받는 혜택 못지 않게 그들의 공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느 날 미국에서 모든 멕시코인들이 사라지는 영화 같은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백인들의 식탁에서 싱싱한 야채와 과일은 사라질 것이고 건설현장의 빌딩 공사는 중단될 것이며 직장여성들은 턱 아모를 구하지 못해 출근하지 못할 것이다. 이민자들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고발 전화로 불법노동자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이들 말고 누가 시간당 3.35달러를 받고 일할 것인가. 저명한 치카노 저널리스트 Jorge Ramos는 “*uno nunca sabe lo que tiene hasta que lo pierde*(결국 그것을 잃어봐야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한다.(2000: 67)

치카노에 대한 미국사회의 과민반응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다. 1998년 L. A. 주재 멕시코 총영사 José Angel Pescador는 한 모임에서 유머로 ‘reconquista(탈환) de California’라는 발언을 하였다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특히 이전부터 멕시코 이민자들에 의해 캘리포니아가 latinization 또는 mexicanization 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보수주의자들의 반응은 매우 격렬하였다.(Ramos, 2000: 80) 라틴화와 멕시코화를 반대하는 이런 조류는 반히스패닉과 반멕시칸 움직임과 연계되어 인종차별적인 뉘앙스를 띠기도 한다.

미국 내 반이민(anti-imigrante)문화 또는 정서 역시 만만치 않다. 1994년 불법이민자들에게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제한하고 교사나 의료 종사자는 불법이민자를 신고해야 한다는 187조에 대해 캘리포니아 유권자 59%가 찬성하였다. 1996년 통과된 ‘english only 법령’¹⁰⁾도 마찬가지

10) 1996년 미 하원은 ‘English Language Empowerment Act’를 259 대 169표로 통과시켰다. 영어가 공식언어로 선포됨에 따라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소수언어 그룹은 공적행위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었다.

로 이런 정서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Green, 1997: 63)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있는 멕스아메리카와 치카노는 미국 못지 않게 멕시코에게도 유의미하다. 우선은 돈이다. 미국에 있는 멕시코인들은 국경너머 형제들에게 2000년 한해 60억 달러를 송금했다. 이들의 보낸 돈은 석유, 관광에 이은 멕시코 제 3의 수입원이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참여이다.

경제적 도움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로 인해 멕시코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멕시코 노동자들은 주로 바하칼리포니아, 치와와, 두랑고 등 국경지역과 과나후아토, 할리스코, 미초아칸, 산루이스포토시, 사카테카 등 중부 내륙 출신이 많다. 이 지역들에서는 매일의 일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남자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이들을 대신하여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경지방에는 “*aquí manda mujer* (여기선 여성이 (모든 걸) 꾸려나간다)” 신조어가 생길 정도이다. 또 이들이 보낸 돈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주택이 건설되고 가게의 매상도 오르고 학교에 스쿨버스가 생기고 위성안테나를 세우는 집이 늘어난다. 마을도로가 다시 포장되고 마을 교회도 보수된다.

외형적인 발전만이 아니라 마을의 전통과 관습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초아칸의 Ecuandureo 마을은 성탄축제를 12일간 여는데 이때 하루는 시카고로 간 마을 사람들이 보내준 돈으로, 다음날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준 돈으로 축제 경비를 충당하는 식의 새로운 마을 전통이 생겨났다. 과나후아토의 Cupareo 마을에선 송금된 돈으로 미국에서 죽은 고향사람들의 유해를 데려오는 일을 하는 공동장례회가 운영된다.(Barry, 1993: 267-268) 이는 일종의 네트워크로 이를 통해 고향사람들은 미국에서 정착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민자들은 고향의 사적-공적인 관계에 개입하는 기회와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멕시코 정치에서도 미국에 있는 멕시코인들은 중요하다. 멕시코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모국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어

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정통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으로의 노동이 민뿐만 아니라 멕시코계-라틴계-WASP(white-anglo-saxon-protestante) 간의 상호관계까지도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멕시코 정치는 국내의 소비와 생산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너머의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어떤 멕시코 대통령도 미국 내 멕시코인들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에 무감각하고서는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2. 치카노의 정체성: Chicanism

치카노의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한 역사는 미멕전쟁 이후인 19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경에서 거주했던 이들은 희망을 잃은 ‘desperados’ 이었다. 미국인들에게 이들은 국경을 배회하는 위험한 범죄자를 의미했다¹¹⁾. 그러나 이들에 대한 스토리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경우가 많았고 전설적이고 영웅주의적 내용이 덧칠해져서 신뢰성이 높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내 멕시코인들의 정체성의 형성은 20세기부터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이민자에서 치카노가 되는 과정의 역사는 크게 이민자 시대-멕시칸·아메리칸 시대-치카노 시대 등 3 과정으로 나누어 조망할 수 있다.(García, 1985: 197-223) 이민자 시대(immigrante era)는 혁명의 전

11) Joaquín Murieta는 소노라 출신의 평범한 캘리포니아 사람이었는데 미국인이 자신의 광산을 빼앗고 형제를 살해하자 범죄자가 되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매우 난폭하여 멕시코인에 대한 반감을 증대시킨 사람이었으나 동시에 멕시코인들에게는 로빈후드와 비교되는 인물이기도 했다. 미멕전쟁에 참전하였던 Juan Nepomuceno Cortina는 Brownsville에 농장을 세우고 정착했으나 멕시코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에 격분하여 범죄자가 되었다. ‘복수하는 천사 avenging angel’ 란 별명을 얻은 인물이었다. 이처럼 멕시코인들은 차별과 불이익에 맞서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이로 인해 국경도시들은 방위대를 조직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Texas Rangers 였다. 이 조직은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멕시코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악명을 얻기도 했다.(Nova, 1988: 87)

화를 피해 일자리 또는 정치적 온거지를 찾아온 멕시코인들의 시대로 시기적으로는 대략 1900-1930년에 해당된다. 이 기간 이민자들은 미국 남서부에 존재했던 소규모 멕시코인 공동체들을 광대한 이민 공동체로 전환시켰다. 이들은 앵글로아메리카의 제도, 법, 문화에 저항하기도 했고 때론 동화되기도 했다. 이 기간 대규모 이민으로 멕시코 문화는 더욱 강화되었고 남서부지역의 자본제적 발전과 저렴한 노동력 요구로 멕시코 이민은 더욱 증가하였다.

멕시칸-아메리칸 시대(mexican-american era)는 대략 1960년까지 기간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멕시코인들이 성장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는 기간이다. 이들은 mexican-american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하고자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인종적 전통성을 중시하면서도 이민자 시대의 의식과는 거리를 두었다. 이들은 미국시민으로서 자각한 ‘동화된 멕시코인’들이었다.

치카노 시대(chicano era)는 60년대에 시작되었다. 멕시칸-아메리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그에 대한 도전 또는 반작용으로 나타난 chicano 운동은 흑인운동, 반전운동, 급진페미니즘과 같이 미국적 가치에 대한 저항과 맥을 같이 하였다. 멕시코-아메리칸은 결국 진정한 미국에 통합되지 못하고 하부적, 좌취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인식하고 미국 내 멕시코인을 위한 과정과 경로를 모색하는 세대들의 시대였다. 이들은 부모세대보다 미국화되었고 교육, 직업적으로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끓어버린 고향인 아스틀란(aztlán)¹²⁾과 치카노 문화민족주의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과 뿌리를 찾고자 했다. 이제 치카노란 말은 비하나 경멸의 어의가 아닌 정체성의 상징으로 오히려 강조되었다. 고등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치카노들은 아

12) 아즈텍 문명의 주인이었던 멕시카족의 고향으로 알려진 아스틀란의 자리적 위치에 대해서 아직 이론이 많다. 지금의 멕시코 중앙고원이라는 설도 있고 캘리포니아, 뉴멕시코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오레곤이나 아이디호라는 연구도 있다.(Enciclopedia(vol. 2): 758)

직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조직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활동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표적 인물로 César Chávez를 들 수 있다. 그는 미국 남부에서 멕시코 이민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미국 내 멕시코인들의 자존과 존엄을 고양시킨 선구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기간은 치카노 운동의 조직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69년 Denver에서 제1회 치카노청년회의(Conferencia Nacional de la Juventud Chicana)가 개최되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수의 신문이 참여하는 치카노언론연합(Chicano Press Association)이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UMAS(United Mexican-American Students), MASA(Mexican-American Students Association)가 조직되었다. UMAS는 인종간 평등을 주장하였고 MASA는 국경지역 학교에서 멕시코 역사를 가르칠 것을 요구하였다. San José State College에 최초로 치카노 연구 박사과정이 개설되었다. 1977년에는 애리조나에서 불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Farmworkers Union이 조직되었다.(Enciclopedia(vol. 5): 3020-3021)

위와 같은 정체성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치카노들은 미국사회 일상에 대해 양면적인 인성을 보이기도 한다. 치카노를 포함하는 히스패닉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식 부분’은 노동과 경쟁의 생활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동시에 그들의 ‘라틴적 부분’은 한가함과 환상을 즐기려고 한다. 이들은 미국사회가 그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준 것을 만족하고 역동적-경쟁적인 미국 사회에 동화하는 특별한 경험을 겪으면서 자신의 라틴적 정체성의 문화적 안정 또는 우월성을 발견하게 된다.(Laster, 1994: 279)

오늘날 치카노들은 그들 부모세대와 비교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타인종그룹(주로 유럽계)과 비교할 때 교육, 주택, 수입 등에서 우월하지 않다. 이들 2-3세대들이 미국사회에 동화하면 할 수록 부모세대와 그리고 멕시코적(히스패닉) 전통-문화와 멀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마치 미국 내 스페인어가 걷고 있는

변화와 적응의 과정과도 유사한 것 같다. 치카노들의 스페인어는 멕시코의 그것과 다르다. spanglish에서 gobernador가 아니라 governador이고 faxear(팩스 보내다)이고 weder(날씨)이다. 현재 일종의 slang 수준인 스팽글리쉬가 조만간 멕스아메리카의 방언이 될지도 모른다.

바리오건 콜로니아건¹³⁾ 오늘날 미국에 거주하는 치카노의 컨센서스는 멕시코성의 강조, 완전한 미국사회로의 동화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V. 맷는 말: 멕스아메리카의 미래

멕스아메리카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멕스아메리카가 객관적인 실체인가를 알아야 한다. 지리적으로 멕스아메리카는 멕시코 국경 이북의 미국 영토라는 명확한 구분을 갖기 때문에 지역으로서의 멕스아메리카는 분명 멕시코와도, 미국과도 차별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멕스아메리카는 지리-지역적인 명확한 경계를 갖는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또 구분되고 경계된다는 면에서 멕스아메리카는 하나의 국경이기도 하다. 양국이 만나는 곳이고 멕시코인과 미국인이 소통하는 곳이다. 의해 만나는 곳이 다 그런 것처럼 멕스아메리카도 예외가 아니어서 역동성과 다문화성이 충만하게 넘치는 곳이다.

멕스아메리카에서 두 문화는 서로 수용되고 동화되어 그들만의 문화로 재생산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치카노 문화, 더 나아가 히스페닉 문화는 유지-계승된다. 특히 히스페닉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그들의 문화적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히스페닉은 가족 간의 유대가

13) 바리오(barrio)는 히스페닉이 많이 거주 도시 지역을 의미하며 반대로 콜로니아(colonia)는 농촌 지역을 지칭한다.

강해서 전통과 가치가 보존-계승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옥타비오 파스도 히스페닉은 가족이 삶의 중심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내 멕시코인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히스페닉은 미 전역에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치카노는 멕스아메리카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내 멕시코인들은 불법노동자전 합법이민자전 치카노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멕시코’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다.

멕시코적 가치와 전통이 강한 멕스아메리카가 어느 날 미국에 독립을 선포하고 멕시코에 합병을 선언할지도 모르며 그 땅들이 다시 ‘트로이의 목마’(송기도 & 강준만, 1996: 141)가 되어 미국을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몽상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것이 미국사회의 현실이다. 동질적 문화를 지키기 위해 스페인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람도 없는 것이 아니다.

푸엔테스는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에 종교를 선물하였고 노인과 옛것에 대한 존경, 구전 문화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가족의 결속을 주었다고 얘기했다. 다가오는 세기에 근대성의 중심주제는 타자와의 만남이며 이런 면에서 히스페닉들은 매우 유리하고 잘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미 흑인, 유럽인, 인디오, 메스티조이며 이베리아인이고, 그리스인이고, 집시이고 아랍인이다. 타자를 배제한다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러면 더 빈곤해질 것이다. 왜냐면 문화는 타자와의 접촉에서 꽂 피우고 고립될 때 사라지기 때문이다. 로스엔젤소스는 오늘날 말 그대로 천사의 도시이다. 왜냐면 문화-언어적 다양성의 천국이기 때문이다.(푸엔테스, 1997: 429-433) 그래서 멕스아메리카와 치카노는 멕시코와 미국 모두에게 희망이다. 이제 미국은 용광로가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되는 모자이크이자 셀러드이다. 오늘날 멕스아메리카는 바로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석영, “멕시코와 미국과의 관계”, 중남미연구 18-2, 1999.
- 김달용, “1990년대 멕시코 대미관계의 현상과 전망”,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논총(6호), 1994.
- 김명혜, “멕시코 국경 도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생활상에 관한 고찰”, 라틴아메리카연구 11-1, 1988.
- 김창민, “미국 내 멕시코계 문학과 문화적 정체성”,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학제학술대회논문집, 2002.
- 송기도 & 강준만, 콜럼부스에서 후지모리까지, 개마고원, 1996.
- 유종선, 미국사 100장면, 가람, 1995.
- 이남섭, “멕시코내 한국 마낄라도라 산업의 역사와 현황”, 멕시코 한국기업의 노동문화 적응, 미래인력연구센타, 2000.
- 카를로스 푸엔테스,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서성철 역), 까치, 1997.
- Barry, Tom, México, una guía actual, Mexico: Ser, 1993.
- Castañeda, Jorge G., “Los ejes de la política exterior de México”, NEXOS (no. 288), 2001/12.
- Gracia, Mario, “La Frontera: The Border as Symbol and Reality in Mexican-American Thought”, Mexican Studies(vol. 1, no. 2), 1985.
- Green, Duncan, Faces of Latin America, London: Latin American Bureau, 1997.
- Latin America: A Political Dictionary, Santa Barbara, California: ABC-CLIO, 1992.
- Lester, Langley, Mexamérica Dos países, un futuro, Mexico, FCE, 1994.
- Medina, Luis, Hacia el nuevo estado. México 1920-1944. FCE, 1994.
- Merino, José, “Mexicanos en Estados Unidos. Presencia e Impactos en

- Sus Comunidades de Origen". Foro de Migración y Desarrollo,
멕시코 하원 인구, 국경, 이민 위원회 주최, 2002/5/24
- Nova, Himilce,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Latino History, New York, Penguin Putnam, 1988.
- Ramos, Jorge, La otra cara de América, Grijalbo, 2000.
- Torres, Blanca, México en la Segunda Guerra Mundial(Historia de la Revolución Mexicana vol. 19), Colmex, 1979.
- Verea, Monica, Entre México y Estados Unidos: Los indocumentados, Ediciones El Caballito, 1982.
- Enciclopedia(vol 2. 5), Mexico,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1987.
- MEXAMERICA HERITAGE INSTITUTE(<http://www.mexamerica.org/id18.htm>, 2002. 8)
- Nexos(no. 288), Mexico, 2001/12.
-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